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공청회

開 會 辭

2021. 4. 22.(목)

보험연구원 원장

안 철 경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장 안철경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합리적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보험소비자, 보험산업 종사자, 그리고 의료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험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축사를 맡아주신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보험은
외제차 등 고가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한방진료비에 대한 문제, 과도한 부품수리비
그리고 정상환자에 대한 과도한 치료비 등이
주된 과제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또한 자동차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정부와 감독당국은 오래전부터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나이롱 환자 억제를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를 강화하였고
2013년에는 진료비심사청구제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이슈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보험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서도 자동차 보험산업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주요국들은
치료관행 합리화, 그리고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경상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면,
영국은 경상환자의 부상기간에 따른
정액배상 및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플래쉬 개혁을 올해 5월 31일부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합리적인 치료관행을
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시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자동차보험이 합리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더 공정해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발표를 맡아 주신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장을 맡아 주신 세종대학교 이순

재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실 각계의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발표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셨거나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

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